

파룬따파를 신앙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이 세상의 “믿음”은 각양각색이며 헤아릴수 없이 많다.”8”자는 길한 수자이고 “4”자는 불길하다고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복숭아나 무는 사악을 피면할수 있다고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집처마에 제비가 둥지 틀면 운이 트인다고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중국사람이 룡의 계승자라고 여긴다. 불교는 많은 부처가 있다고 믿으며 기독교는 진신(真神) 하나 밖에 없다고 여기는데 각자는 저마다 자기 견해를 갖고 평화공존하고 있다. 믿음은 사상이고 마음이며 완전히 자유이다. 봄꽃과 가을달은 각자가 좋은 점이 있기에 강제로 통일할수 없다. 오늘 이 세상의 어떤 국가의 정상적인 정부든지 막론하고 이 “믿음”은 바르고 저 “믿음”은 나쁘다고 평가할수 없으며 더욱이 폭력으로 교란할수 없다. 그렇지만 사상방면에서 어떤 국가는 법을 세워 나치사상, 공포주의, 공산주의사상의 전파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은 력사가 증명하다시피 이러한 사상은 직접 신도들을 부추켜 나쁜짓을 하며 왕왕 극단적으로 폭력을 고취하며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파룬따파를 신앙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이렇게 말할수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세계인권선언” 제 18 조에는 《사람마다 사상, 양심과 종교자유



의 권리가 있다.》고 써여져 있고 “국민권리와 정치권리 국제공약” 제 18 조에는 《사람마다 사상, 양심과 종교자유를 향수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써여져 있으며 “중국헌법” 제 36 조에는 종교신앙자유에 관한 규정이 써여져 있다. 하지만 중국헌법에 써여진 이러한 좋은 부분은 중공정권이 견본을 만들어 외국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중국백성들한테 실행하지 않고 있다. “신앙자유”는 일종 가치관으로서 세계의 절대다수의 국가에서 법적형식으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며 신앙자유를 간섭하면 왕왕 범죄가 구성된다. 중국의 형법에도 “종교신앙 자유불법박탈죄”라는 규정이 있다. 중공은 파룬궁에 대해 어리석은 착오를 범했다. 중공은 무신론을 고취하면서 유심론은 죄다 착오적인 것이라고 정한다면 어떤 유심론은 “바르다”고 하고 어떤 유심론은 “나쁘다”고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더욱이 파룬궁에 대해 거짓을 조작하여 황당한 평가를 하고 폭력방식으로 선량한 파룬궁학원들을 “세뇌”, “전화”, “박해”를 하지 말아야 한다. 중공이 한가지도 해가 없고 백가지가 리로운 파룬따파의 신앙자유를 간섭하고 파룬궁학원들을 박해한 것은 곧바로 범죄행위이다.

스위스건강박람회에서 환영을 받은 파룬궁



지난 11 월 중순, 스위스 프래보에서 일년에 한번씩 사흘동안 열리는 건강박람회에 참가한 파룬궁학원들은 현장에서 중국서법을 시범하고 “파룬따파가 좋다”, “생명은 찼싼런을 수요한다.” 고 쓴 작품들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드렸다. 파룬궁

학원들이 나누어 주는 진상자료와 5 조 공법을 보고난 많은 사람들은 반박해서명서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현장에서 파룬궁을 배웠다.

페루 파룬궁학원들의 마음속 말

지난 11 월 22 일부터 23 일까지 페루에서



아태정상회의가 열렸다. 파룬궁학원들은 페루 총통께 중국에서 파룬궁을 박해한 관련 진상자료를 드리고 나서, 중공이 파

룬궁에 대한 박해를 즉각 중지하라는 페루파룬궁학원들의 요구를 회의에 참석하러 온 호금도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해줄 것을 요청했다. 호금도가 경유하는 비행장으로부터 페루총통관저까지 “파룬따파는 좋다”, “파룬따파는 정법이다”고 쓴 표어를 든 파룬궁학원들을 볼수 있었다.

련합국에서 중공에게 파룬궁학원생체장기적출을 실행한 사실에 대해 진상 조사할 것을 명령

지난 11 월 21 일,련합국에서 중공은 즉시 독립조사단을 꾸려 파룬궁학원들이 받은 혹형과 학대 특히 파룬궁학원생체장기적출을 실행한 사실에 대해 조사할 것을 명령했으며 박해에 참가한 흉수들을 법에 의해 처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1 월 7 일과 10 일에 련합국반혹형위원회에서 7 년래 처음으로 중국혹형문제를 심의했으며 19 개 단체에서 중공이 감행한 혹형에 대해

강력히 질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중공의 황당한 궤변은 좌중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캐나다 인권 변호사 매타스는 회의에서 《만일 중공이 독립조사단을 조직하지 않고 파룬궁학원들이 받은 박해와 생체장기적출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는다면 "혹형금지공약"에 규정된 국제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파룬궁학원생체장기적출은 력사상 전례가 없는 죄악이다.

원 중공 정보인원 비드(옆사진 오른쪽)가 2006 년 3 월 9 일 대기원 인터넷에, 심양수자툰의 비밀 집중영을 설치하여 안에서 대량의 파룬궁학원의 생체장기를 적출한 후 시체를 소각한 실증자료를 제기했다.

원 심양 수자툰 료녕성혈전중서결합병원의 직원 안니(웃사진의 왼쪽)가 《집중영은 이 병원 지하에 있었고 보일러실은 화장터로 고쳤으며 2001 년부터 지하에 갇힌 6 천명 파룬궁학원은 여태까지 살아난 사람이 없었다. 그중 4 분의 3 의 사람은 심장, 신장, 안각막, 피부를 도려낸후 시체를 태워 버렸다. 그의 전 남편은 2 천여명 파룬궁학원의 안각막을 도려내고 엄청난 정신타격을 받고 해외로 피난한후 암증에 걸렸다.》고 폭로했다.

심양 군부 후군부에 소속된 로군인의사도 《수자툰병원은 전국 36 개 집중영중의 하나로서 중공은 군대계통을 통해 파룬궁학원의 생체장기를 적출하여 폭리를 얻었다.》고 증명했다.

파룬궁학원생체장기적출의 철같은 사실앞에서 중공은 3 주일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터무니없이 부인했으며 지금까지 외계독립조사단이 중국에 가서 조사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다.2006 년에 캐나



다 전 아태사 사장 길고어(옆사진 왼쪽)와 인권 변호사 매타스(옆사진 오른쪽)가 조직한 조사단은 두달동안의 독립조사와 증거확보를 거쳐 2006 년

7 월 6 일 중공의 파룬궁학원에 대한 생체장기적출 조사보고를 공개하고 후에 유엔에 공포했다.그들은 50 여개 항목의 증거를 수집했는데 그중 다량의 전화록음도 들어있었다.조사인은 장기이식수술을 원한다는 명의로 중국병원에 문의했는데 대다수 의사들은 장기래원은 나이젊고 건강한 파룬궁학원

들이라고 토로했다. 광서민족병원 로국평(鲁国平)(옆사진)은 바로 그중 한사람이다.



매타스는 《지금 장기이식수술을 한 수량은 사형범의 수량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이것은 중공이 파룬궁학원들을 계속 살해하고 생체장기적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해 말했다.

유엔 특파원 프스트로워크(옆사진)는 이렇게 말했다.《2000 년부터 2005 년까지 이 기간은 파룬궁학원들이 가장 참혹하게 박해를 받은 시기이며 또한 중공의 기관의식수술이 급격히 늘어난 계단이다.》고 말했다.



장기의식에 공급한 인체는 어디서 왔는가?

중국의료기관의학협회의 수자통계에 의하면 1994 년부터 1999 년까지 이 기간에 중국에서 18500 개 장기이식을 했고 2000 년부터 2005 년까지 이 기간에 60000 개 장기를 의식했다.중공은 2005 년에 비로서 사형에 처한 죄범의 장기를 사용했다고 승인했다.중국은 매년 사형당한 죄인수는 1600 좌우이다.그렇다면 2000 년이후에 급격히 증가된 41500 개 장기이식에 공급된 인체는 어디서 왔는가? 중공은 2000 년이후에 장기이식한 수량에 대해 도무지 해석할수 없다. 파룬궁에 대한 탄압은 1999 년 7 월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의식하는 장기는 반드시 살아있고 신선해야 하기에 병원에서 짧은 시간내에 이렇게 많은 장기이식에 공급하는 신체를 얻게 된 것은 중국에서 거대한 장기이식 인체공급창고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설명하고 있다.